

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

언어 영역 듣기 대본

1.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옛날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. 이 고을에는 논밭이 워낙 적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을 관아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요. 그러던 어느 해 원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“올해부터는 양식을 그냥 줄 수 없네. 저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품삯으로 주겠네.”

일이 시작되었지만,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일은 고되었습니다. 더군다나 품삯으로 받는 양식도 그리 많지 않았지요. 사람들은 하나, 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. 아전들은 양식을 그냥 나눠 주자고도 말해 보았습니다. 하지만 원님은 “내게도 생각이 있다네.” 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.

몇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밭이 되었습니다. 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던 사람들에게 “내가 그간 품삯을 좀 박하게 주었지? 남은 품삯은 지금 주겠네. 바로 저 밭 일세. 저 밭은 이제 자네들 것이네.” 하며 그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.

2.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학생: 선생님, 질문이 있는데요.

교사: 그래 은영아. 뭔데?

학생: 자연 현상은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?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.

교사: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. 저기 국기 게양대를 한번 볼래? 깃발이 펄럭이지? 저 깃발은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. 이때 바람은 원인이 되고 깃발의 움직임은 결과가 되지.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하는 거야.

학생: 아, 그렇군요. 그럼, 사람의 행동도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?

교사: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인과 관계보다는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.

학생: 목적론적 관계는 또 뭔데요?

교사: 음, 예를 들어 볼까? 은영이 너,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, 왜지?

학생: 앞으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요.

교사: 그렇구나.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. 그렇다면 이때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은영이 네가 세운 목적이고, 그 목적은 바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. 이런 것이 목적론적 관계야.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. 하지만 너는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겠니? 그럼 이제, 깃발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 현상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겠지?

학생: 예, 선생님. 깃발은 바람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지만, 사람의 경우는 (_____.)

3.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지금부터 과학 전시실에 있는 ‘에코스피어’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 외부와 격리된 우주 기지 내부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, 그때 필요한 식량과 산소 등을 지구에서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. 이들은 생태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스스로 유지되는 환경 모형을 만들고,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.

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유리공처럼 생긴 상품을 만들었는데, 그것이 바로 과학 전시실에 있는 ‘에코스피어’입니다. 이 밀폐된 유리공 속에는 ‘바다’에 해당하는 물과 ‘땅’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, 그리고 ‘생물’에 해당하는 바닷말, 작은 새우,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. 물론 ‘대기’에 해당하는 공기도 있습니다. 이 유리공의 외부에서 빛의 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바닷말이 자라면서 산소를 생산합니다. 그러면 새우는 이 바닷말과 산소로 살아가고, 새우의 배설물은 자갈과 모래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바닷말의 양분이 됩니다.

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‘에코스피어’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,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‘에코스피어’의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.

[4~5]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.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.

여: 여기는 김준근 풍속화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관입니다. 오늘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한국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관장님.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, 김준근은 어떤 화가입니까?

남: 네, 김준근은 개화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. 궁중 화가는 아니었고요,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됩니다. 이 화가의 특이한 점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작품만 해도 1,200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.

여: 아, 예. 국내의 한 대학에 새로 기증된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렇게 김준근의 그림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?

남: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조선의 풍속을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.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았던 것이지요. 그래서 그들이 귀국할 때, 김준근의 그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.

여: 그런 이유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? 얼마 전에 열린 비숍 여사의 사진전에서 개화기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. 사진이면 충분했을 텐데, 왜 굳이 그림이었을까요?

남: 사진보다는 김준근의 그림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충족해 주었을 겁니다. 방아로 곡식을 찧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포스터를 보세요. 만약 외국인들이 이 방아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,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 방아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,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림이 사진보다 조선인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.

여: 예, 정말 그렇겠네요. 사극을 제작할 때, 당시 사회상을 재현하기 위해 풍속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. 김준근의 그림도 그런가요?

남: 그렇습니다. 사실 김준근의 그림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국내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어요.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 등을 그의 그림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지요.

여: 네,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스터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겠네요. 말씀 감사합니다.